

Lenzing, Lyocell 독점공급

Tencel 인수로 생산능력 12만톤 ... EC 독과점 불구 허가

Lenzing이 Corsadi의 네덜란드 Arnhem 소재 Tencel Lyocell 섬유사업을 인수했다.

Corsadi와의 계약이 확정·체결되면 Lenzing은 Lyocell을 독점 공급하게 된다. Corsadi는 최근까지 Acordis가 운영하던 사업을 소유하고 있다.

Tencel은 미국 앨라배마주 Mobile와 영국 Grimsby의 총 8만톤의 Lyocell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으며, 매출은 1억유로(1억1800만달러) 수준이다.

Lenzing은 오스트리아 Heiligenkreuz에 Lyocell 플랜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최근 2배 증설해 총 4만톤에 달한다. Lenzing의 Lyocell 사업은 과거 15년간 Tencel의 Lyocell 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Lenzing과 과거 Courtauld는 현 Akzo Nobel의 전신인 Akzo로부터 각각 Akzo의 Lyocell 기술개발 허가를 얻어 Courtauld는 1992년 Tencel 브랜드의 Lyocell 상업화에 성공했고, Lenzing은 1997년 Lyocell을 상업화했다.

Lenzing과 Courtauld는 몇 차례의 특허권 분쟁 이후 1998년 Lyocell 기술에 대한 제한적 교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Akzo는 1998년 Courtauld를 인수하고 Tencel을 포함한 섬유사업을 통합해 Acordis를 설립했으며 민간투자자본인 CVC가 1999년 Acordis의 지분 64%를 매입했고 Akzo가 21%를, 나머지 지분은 Acordis 경영진이 소유하고 있다.

CVC는 2001년 Lenzing 인수를 시도했으나 Acordis와 Lenzing의 Rayon 섬유 사업을 통합하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EC(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저지됐다.

그러나 EC는 Lyocell이 전체 섬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Lenzing이 Lyocell을 독점하더라도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Lenzing의 Tencel 인수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CVC를 비롯한 Acordis의 다른 주주들은 2004년 초로 예정됐던 기업공개 계획을 백지화한 뒤인 2001년 Acordis의 자산을 분할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Acordis 주주들은 2003년 중반 Corsadi를 설립하고 Acordis의 나머지 4개 사업을 Cordadi에 양도했다.

Corsadi는 일련의 매각을 용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Acetate 생산설비와 Enka의 Rayon 타이어코드 사업 및 Nylon 에어백 사업도 소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08>